

# 1년 사이에 공장허가권 두번 양도

## 주민대책위, “공장허가권 양도 사실 증명 서류 없다” 市 관계자, “경찰에서 관련 서류 받아야 원인 파악”

영중면 영송리 페타이어 재생공장 허가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장허가권이 2중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삼보산업(주) 허가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했다.

지난 5일 영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대표와 삼보산업, 관계 공무원간의 대책회의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에이치디, 씨엔씨가 2003년 금성콘크리트에 공장 허가권을 양도 해 주고, 2004년 또다시 윤학무에게 허가권을 양도해 결국 1년 사이에 하나의 공장허가권을 2중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대책위원회는 윤학무에게 삼보산업에게 공장허가권을 양도했는데, 이전 행위인 에이치디, 씨엔씨가 윤학무에게 공장허가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 번지에서 최초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았다는 권 모씨는 공장 등록한 이후 운영하다가 매제인 금성콘크리트 대표에게 허가권을 양도했고, 금성콘크리트는 현재까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포천시 관계 공무원은 “에이치디, 씨엔씨가 윤학무에게 양도된 관련 서류와 윤학무에서 삼보산업(주)으로 넘어간 관련 서류가 경찰에 넘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경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해 봐야 2중으로 양도되었는지, 그리고 538-10번지 추가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2중 양도 외에도 에이치디, 씨엔씨에서 윤학무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필지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12월 에이치디, 씨엔씨는



지난 5일 영중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대책위과 삼보산업(주),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2중으로 양도된 공장허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중면 영송리 538-1번지 용지면적 1,645㎡, 건축연면적 617.5㎡, 제조시설 535㎡, 부대시설 825.5㎡의 콘크리트빌, 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윤학무에게 양도한 것으로 공장설립등의 변경 승인 통보사항

에 기재되어 있다. 양도를 받은 윤학무에게 기재사항에는 영중면 영송리 538-1번지 외에도 538-10번지가 추가되어 용지면적이 12,246㎡, 건축연면적 617.5㎡, 제조시설 535㎡, 부대시설 825.5

㎡라고 되어 있다. 결국 538-10번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되었고, 윤학무에게 538-10번지 토지를 다시 삼보산업(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③7

일동면 기산리 이장 나윤수

## 고용창출과 노인 일자리 찾기 우선



나윤수 이장  
일동면 기산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는 지리적으로 청계산을 뒤로하고 있으며, 일동시가지와 근접한 마을로 청계산 자락 아래에서 대대손손 경효초신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구 47번 국도주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도로변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위치해 어디에서든지 마을에 진입할 수 있다.

최근 세르보코리아(주)와 자매결연을 통해 활기찬 농촌민들기에 나서고 있는 일동면 기산리 나윤수 이장(48)으로부터 마을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나 이장은 올해 처음 이장으로 임명돼 마을 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참 이장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산리는 4개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1반부터 배리(아곡), 덕고개, 셋말, 관동로 4반인 관동을 제외하고 마을 이름에 모두 닭과 새 관련된 단어가 포함돼 있어 과거 닭장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산리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온 산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이 산재는 마을에 위치한 광광산 진골에서 지내는 의식으로 47반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내고 있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총 276세대 706명이 거주하고 있어 외형상 큰 규모의 마을로 보이나 실제 군인아파트 주민이 포함돼 자연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다.

나 이장은 “마을이 일동면에 서도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이라며 “일주민이 50% 이하지만 외부유입 인구에 대해 호의적이며 융합하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으로 점차 노령화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나 이장은 “일단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지만, 대부분 생선상 등이 없어 업체에서도 꺼리는 실정”이라며 “노령화로 가고 있는 마을의 고용창출과 노인복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산리는 마을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

품 골프 및 스포츠웨어인 세르보를 전국 유명 백화점과 골프장 등에 유통하고 있는 세르보코리아(주)(대표 윤수영)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나 이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노동 교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및 세르보코리아(주) 직원들의 워크샵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마을을 발전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을 위한 산재를 지내는 풍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산 리는 나 이장을 비롯해 4개반의 반장과 노인회(회장 박보근), 박영덕 새마을지도자, 류정희 부녀회장, 영농회(회장 홍성욱) 등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나 이장은 “기산리에는 현재 청년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과거에는 일동면 청년회를 주도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최근 노령화에 따라 잠시 구성을 보류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 이장은 마을조직의 활성화와 마을의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기존 원주민을 중심으로 추봉(리세)을 모으고 있다.

나 이장은 “추봉은 전·후반기 각각 1만5천원씩 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모이는 돈이 2백여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경로잔치 등 마을의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이장은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좋은 협조관계를 유지해 줘 감사하다”며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시, 행정혁신과제 보고회

### 토론식 혁신보고회 개최로 행정혁신 추진기반 구축

포천시는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혁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맑고 투명한 물 같은 혁신 행정을!”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자신들이 발굴한 혁신과제를 발표해 공무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특히 사흘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돼 행정혁신을 위한 포천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먼저 첫날에는 6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인프라 구축 ▶업무수행 ▶주민과의 파트너십 강화 ▶혁신산출 등 네 분야에 걸친 공과과제 보고회를 갖고 혁신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어 담당관실과 사업소, 자치행정국, 산업도시국 별로 잇달아 부서별 개별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포천시는 변화와 혁신은 이 시대 공직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혁신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이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공무원들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정혁신과제



포천시는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혁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포천시 공무원들은 깨끗한 환경과 윤리행정만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삼명운동(三明運動)”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황용선 포천시 부시장은 시민을 지향한 혁신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추

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관리를 토대로 하는 결과중심·고객중심 행정 추진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정책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춘 주민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고질·반복·집단민원 해결 등의 4대 전략 아래, 공통혁신과제와 부서별 개별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내리 경로당 폭염속 26주년 생일잔치

지난 5일 내촌면 내리 경로당(회장:조건화 여회장:유재숙)이 26돌을 맞이했다.

폭염 속에서도 내리 남 여 회원 130여명 중에서 절반 정도의 회원들이 참석해 친목도모와 우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처음 내리 경로당이 설립될 당시를 회상하며 마련된 점심메뉴는 회원들이 손수 마련한 삼계탕과 떡, 과일 등을 즐기면서 폭염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내리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들어 새롭게 리모델링한

내리 경로당은 26돌 이란 세월의 흔적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 회원들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지역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희장은 “내리 경로당이 벌써 26돌이 되어 노후화 되어 있지만 이번 리모델링후 많이 깨끗해졌다”며 “이 곳에서 허노래락을 같이하며 동고동락하는 내리 남 여회원들이 건강하고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포천시는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혁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비닐 쇼핑백



### 비닐 제품



###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